

처용가 연구의 현황

최 용 수

〈目 次〉

- | | |
|--------------------|-----------------------|
| I. 머리말 | 3. 제3기(1960년대~1970년대) |
| II. 연구의 史的 개관 | 4. 제4기(1980년대~1992년) |
| 1. 제1기(1918년~해방전) | III. 마무리 |
| 2. 제2기(해방후~1950년대) | |

I. 머리말

‘처용’이란 이름이 들어간 노래에는 신라 처용가, 고려 처용가, 그리고 잡처용의 셋이 있다. 물론 뒤의 두 노래는 신라 처용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신라 처용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고려 처용가에 대해서는 몇 편의 연구만 있고,¹⁾ 잡처용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언급은 있으나 단독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신라 처용가 연구가 어디까지 왔나 고구해 보려고 한다.

1893년²⁾ 이래 지금까지 100년 동안 향가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업적이 있었다.³⁾ 그 중 처용가에 대한 연구는 향가 가운데 어떤 작품이나 국문학 분야 중 어느 작품

-
- 1) 려중동, 고려처용 노래 연구, 고려 시대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75.
 김상연, 처용가고, 국어국문학 72·73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76.
 이명구, <처용가> 연구, 고려가요 연구, 새문사, 1982.
 김순진, 고려처용가와 신명, 고려시가의 정서, 김대행편, 개문사, 1985.
 줄 고, 처용가고, 영남어문학 제16집, 영남어문학회, 1989.
 박노준, <고려처용가>의 형성과정, 고려가요의 연구, 새문사, 1990
 서대석, 고려<처용가>의 무가적 검토, 한국고전시가 작품론1, 집문당, 1992.
- 2) 岡倉由三郎, 吏讀諺文考, 동양학회잡지, 143·144호, 1893.

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⁴⁾ 그 결과 성과 또한 대단하여 국문학 이해의 깊이를 더해 주었고, 폭을 넓게 했다. 그리하여 연구사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104·114·168·179), 종합 토론 및 발표 대회가 행해지고(81·187·206), 문헌 정리가 되기도 했다(131·132). 단일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렇게 활발한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부분에 따라서는 심층모형 탐색을 위한 의견 접근 내지 원리를 제시해 주는데 기여하기도 했지만 견해의 차가 더 드러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처용의 정체만 하더라도 어부, 불자, 화랑, 용자, 무당, 지방호족의 자제, 이슬람 상인, 용성국 변방족, 남방계 이민족, 일식신, 용신이면서 터주신, 여름의 상징, 민중의 상징적 인물, 관념적 소산, 의식 등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이와 같은 것은 처용설화가 갖고있는 복합성과 독창지향적인 학문의 속성에 연유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것은 혼란을 가중시켰다기보다는 입체적인 이해가 이루어졌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자료의 특성이기에 어느 한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독단의 주장으로 처용설화 내지 처용가를 조명한다는 것은 자기 주장에 고착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료 자체에 대한 바른 파악과 인접 학문 원용에서도 상호보완이 있어야 한다. 처용설화 및 처용가에 대한 실제 규명의 진전을 위해 지금까지 연구의 업적을 정리하여 반성과 전망을 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으리라 본다. 처용설화 및 처용가 연구의 사적 검토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개관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연구사의 정리가 쉽사리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아주 조심스럽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를 모두 탐독할 수 없어 접할 수 있는 논문만 살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연구자의 논지를 잘못 파악할 수도 있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선학들의 많은 질정을 바란다.

3) 황패강·강재철·김영수 편, 향가·고전소설관계 논저 목록, 단대출판부, 1984에는 1982년까지 발표논문 1479편, 저서 및 자료 284책의 목록이 있고, 최철, 향가의 문학적 해석, 연세대 출판부, 1990년에는 1989. 8. 31 현재까지 외국어로 된 11편의 목록을 합쳐 1500편의 논문목록과 저서 및 자료 142책의 목록이 있음.

4) 김동욱·황패강·김경수 편, 처용연구논총, 울산문화원, 1989에는 151편의 관계 논문 목록이 작성되어 있다.

II. 연구의 史的 개관

처용가는 향가 해독의 열쇠가 되었다. 즉, 신라 처용가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노랫말이 「악학궤범」에 있는 고려 처용가에 우리말로

中葉 東京불근도래새도록노니다가
 附葉 드러내자리톨보니가르 리네히로새라
 小葉 아으돌흔내해어니와들흔누해어니오

라고 기록되어 있음으로써이다. 그러므로 향가에 관해 언급할 때는 처용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만큼 처용가가 우리 문학사에 차지하는 의의는 지대한 것이다. 처용가에 관련된 213편의 논문 목록 중 필자가 접할 수 있는 것을 살펴 먼저 통시적으로 개관해 보고자 한다. 처용가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시대 구분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 제1기(1918~해방전) : 처용가의 해독 및 그 배경 설화에 관심을 갖는 시기.
- 제2기(해방후~1950년대) : 처용가의 해독의 정리와 문학적 해석의 준비기.
- 제3기(1960년대~1970년대) : 인접학문을 원용한 처용가·처용설화의 해석 및 종합적인 연구심화기.
- 제4기(1980년대~1992) : 처용가 해독의 재검토 및 문학적 해석의 새로운 탐색기.

1. 제1기: 처용가의 해독 및 그 배경설화에 관심을 갖는 시기

제1기는 향가 해독의 일환으로 처용가 해독이 이루어지고 처용설화에 부분적인 관심을 갖는 시기였다.

초기 학자들의 향가 연구는 처용가 해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최초로 처용가 해독을 한 이는 일본사람 金澤(1)이다. 金澤은 1918년 「국문학통론」 부록 제1장 문자항에서 처용가의 해독을 시작했고, 다음 「조선회보」 4월호에서 먼저 해독하지 못한 4자를 모두 해독한 것이다. 여기에서 일문·영문으로 해독하였는데 영문 해독만 보면 다음과 같다.

Tong-Kyōng Parkun tar ira

Pam teur-i norra ka-taka
 Teur-a-sa cham-lui pokan
 Tari o i möis-si ra ra
 Tur-eun nai arai ö it ko
 Tur-eun nui-si arai ön ko
 Pon-eui nai arai i-ta-ma-ö-neun
 Spait-ta eur ötchi ha-ri ko

그러나 처음 우리말로 해독한 이는 1918년 신채호이다(4). 그의 경우를 보면,

그 가운데 處容의 本歌를 번역한 여섯작이 있으니, 즉 ‘東京발근 다래’는 “東京 明期月良”의 역이요, ‘새도록 노니다가’는 “夜入伊遊行如可”의 역이요, ‘가라히 너히세라’는 “脚鳥伊四是良羅”의 역이요, ‘돌흔 내해어니와’는 “二勝隱吾下於叱古”의 역이요, ‘돌흔 뉘해어니요’는 “二勝隱誰支下叱焉古”의 역이라. ‘月良’ ‘다래’ 등은 다 古人이 上音의 下蒙한 者를 구분하지 못한 까닭이니라. 다만 本歌의 ‘明期’와 ‘月良’의 間에 ‘隱’자가 빠진 듯하며 《樂學軌範》의 ‘새도록’이 ‘夜入伊’의 직역이 아니며, ‘너희로새라’가 ‘四是良羅’의 직역이 아니며, ‘내해어니와’와 ‘뉘해어니요’가 ‘吾下於叱古’나 ‘誰支下焉古’의 직역이 아니요, 最後 二句의 “本矣吾下是如馬於隱”과 “奪叱良乙何如爲理古”는 역이 없으니 이는 원래 後歌(곧 《樂學軌範》의 ‘處容歌’가 本歌), 곧 《三國遺事》의 〈處容歌〉를 역한 자가 아니요, 다만 處容을 讚訟하는 동시에 우연히 本歌의 上六句를 演述한고로, 同異의 加減이 있음이라.⁵⁾

이와 같다. 신라 처용가의 향찰과 고려 처용가의 우리말을 대비하여 검토한 것이다. 이에 이어 鮎貝房之進(2), 권덕규(3), 小倉進平(6), 前間恭作(10), 高橋亨(11)이 해독하였다. 이들 중 小倉은 1929년에 해독법을 체계화하여 향가 해독 및 방향을 4가지로 밝히면서 처용가를 해독하였는데 ‘本矣’의 해독을 다른 사람과 달리 ‘믿이’로 하였다. 이때까지 처용가에 대한 연구가 어학적 해독이 중심이었는데 이능화(5), 이은상(7), 조운제(8), 문일평(13)에 와서는 그 배경 설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능화는 辟邪의 문신과 魚鼻大王 또는 鉢里公主의 설화와 관련하여

5) 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이우출판사, 1981. 7. 12~13쪽에서 재인용.

여 해석 하면서 처용 처를 무녀로 보고, 이은상은 漁人 중의 한사람으로 보았다. 이은상은 '향가의 가요사적 지위' (7)에서

假使, 處容이란 그 人物이 東海龍의 아들이라 하였스니 萬一 꼭 그대로라 하면 그는 母論 神話속의 人物일 것이요, 그러치 안코 우리가 推理的으로 抑測이라도 한다면 開雲捕에 王이 行駕하였다는 날에 雲霧가 冥暗하였다가 슬어졌다 했스니, 아마 그날에 東海 漁人들이 破船이나 當하고 헤엄쳐 浦邊에 대인 것이 그 事實의 本이 아닐까 할 수 있슬 것이다. 萬一이 말이 無妨하다면 處容은 漁人中の 한 사람 일 것이 分明하다.⁶⁾

고 하였다. 처용에 대한 배경 설화를 신화적 소산으로 보고 처용을 신화적 인물로, 처용가를 신화적 가요로 보았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적 사실로 보아 처용을 漁人중의 한 사람이라 하고 역신을 불량자의 사실로 보았다. 이와 같이 처용의 배경설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가로서의 위치를 밝히는 데 있어서 후대 학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았으며 처용 배경설화에 대한 문학적 연구의 선구를 이루었다.

그리고 조운제는 '삼국시대 가무회'에서 삼국시대 작품을 소개하는 가운데 처용가무란 항목으로 「삼국유사」의 '처용랑 망해사'조를 들어 설명하였다. '처용랑 망해사'조를 처용무의 기원이라 하고, 「동경잡기」 2권 古蹟조를 참고하여 처용무에 가면을 사용한 듯하다고 하였다. 또한 「도은집」, 「용재총화」, 「악학계법」의 관계사항을 들어 그 역사적 전개를 간략히 언급하였다. 그리고 권덕규, 金澤, 鮎見房之進, 小倉의 처용가 해독을 인용하여 권덕규의 해독은 「악학계법」의 것을 그대로 옮기어 적는데 지나지 않고, 金澤의 해독은 어학적인 견지에서 試解했고, 권덕규의 것과 큰 차이가 없으며, 鮎見房之進의 해독은 구절 띄는 법이나 해석 방법이 앞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많다고 하면서 小倉의 해독에 이의를 제기한 前間恭作이 있으나 그의 해독을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분일평(13)은 '처용의 가무'에서 처용설화가 신라 말기의 퇴폐적 향락 생활의 한 면을 보여 주며 처용의 관용을 한국 민족성의 발로라 하였다.

손진태(14)는 '처용랑 전설고'에서 「東京菴은 달에 밤들이노니다가 들어사자리보곤 가로」 네히어라 돌흔 내이었고 돌흔뵈이언고 본티내이다마룬 앞아놀엇디홀

6) 최철·설성경 역음, 향가의 연구, 정음사, 1984. 20쪽에서 인용.

고'의 前問의 해독을 인용하고, 처용설화를 해부하였다. 즉 망해사연기설화가 불교도의 의적인 설화이며, 그것에 이어 나오는 처용설화는 門神의 연기전설이라고 했다. 또 처용이 동해 용왕의 아들이라함은 처용이 비실재인물임을 말해주는 것이며, 처용전설 발생 이전에 벽사진경의 주술적 가치를 가진 문신 처용의 화상이 민속상에 존재하였다고 하면서 처용이 실재 인물이 아니고 문신인이상 처용가는 처용소작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경주를 동경이라 하는 것이 고려 성종(987년) 때부터 비롯되었고, 처용 처가 역병에 걸렸음은 痘疫 등 전염병에 걸린 것인데 이 痘疫의 조선유입이 元代라는 것을 가정하여 처용전설이 고려 중엽이나 말엽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추론하였다. 그리고 痘神이 처용 처를 범하였다 함을 性的으로 오해하여 자연히 부인의 미모에 언급하여야 될 것이므로, 미모이기에 부인을 범하였다고 하는 것은 작가의 소설적 윤색이 가해졌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안자산(15)은 '처용가에 취하여'에서 처용가가 上古吏讀式으로 적힌 것이라는 것을 「京都芸文」(1927. 1)에서 말한 바 있다고하고 손진태의 주장인 처용가의 고려대 생성설을 반박했다. 즉 고려 처용가를 예들어 말하고, 동경이란 것이 深源寺의 秀澈和尚 碑文의 東京原이란 말과 「예기」 月令 張衡의 「東京賦」 등등, 그리고 최치원의 '大面'을 예들어 처용신화는 신라시대 전설이 儼戲와 합하여 불교설로 修裝된 것이니, 그것이 고려시에는 百戲의 일종이라 된 것이라 하였다.

또 이에 대해 손진태(16)는 '동경과 처용가에 취하여'에서 안자산에게 답한다고 하여 경주를 동경이라하는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하면서 서기 813년에 所建된 단속사 神行禪師 碑文중에 '禪師俗姓金氏 東京御里人也……'라하여 신라 처용가가 고려의 소산이라 한것은 억측이라 하고 疫神을 痘疫神이라 하는 것을 굳게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처용가가 고려시대에 생성되었다는 앞의 자신의 주장을 정정하였다.

조운제(17)는 다시 '신라시대의 가면극'에서 황창무와 처용무를 함께 다루면서, 이것은 조선 고래로 유전하여 온 전설 우에 토대를 둔 일종의 연극이라 하고, '조선시가의 원시형'(22)에서 향가의 형식을 1. 전후양절로 나누어 전절 8구에 후절 2구, 합하여 10구로 된 것, 2. 전후절의 차별없이 8구로 된 것, 3. 4구로 된 것으로 분류하면서 2항에 속하는 것이 2수밖에 없다고 하여, 처용가를 8구체로 본 것 같았다.

이후 김재철(21)은 처용가무에 대해 史的개관을 門神과의 관련에서 해석했으며 최문진(23)은 '향가와 조선문학의 여명기'에서 처용의 전설이 예로부터 노래도 되고

춤도 되어 상류사회의 향락적 재료가 되는 동시에 年終에는 追儺의 禮로 궁중에서 지금까지 이 풍습이 내려오고 있다고 하였다.

양주동은 ‘향가의 해독—특히 원왕생가에 대하여’(日文記) (‘친구학총’, 1935. 2)에서 小倉의 해독 중 ‘둘은나잇고 둘은 누이언고 믿이……’의 ‘나이’, ‘누이’, ‘믿이’의 해독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내해’, ‘뉘해’ ‘본디’로 해독하였다. 그리고 1939년 10월에 ‘처용가 釋註’를 발표하고, 「조선고가연구」(32)에서 처용 출현의 시기를 일식전후로 보아 처용을 당시에는 동해 龍子, 후세에는 日蝕神 라후로 보았다. 그리고 송석하(25)는 가면의 조형미술상, 무용의 동작상 처용무와 상대놀이는 별개의 것으로 처용설화는 신라화랑도 찬양관념도 포함된것으로 보았다.

유창선(26)은 小倉의 해독 후 처음으로 「삼국유사」 소재 14수를 해독하는 가운데 처용가를 小倉의 해독과 대조하여 해독하였고, 羅衣耕夫는 ‘신라의 음악무용’(조광, 1935. 11)에서 처용무를 ‘神事舞及宗教舞’항에 넣고, 신사무 및 종교무는 史籍의 신화 및 전설상에 보이는 것인데 기록할 가치조차 의심하나 무용이란 말을 대접하여 특히 열거하였으며 그 중 처용무는 「악학계법」 및 「先儒文集」에 신라의 가요·무용이라 하였으나 「삼국유사」 및 「삼국사기」에 학연하지 않고 「고려사」에 고려악이라 한 이상 無專과 한가지로 삭제하여야 마땅하나 그대로 둔다고 하였다. 또한 김윤경의 ‘신라의 문자와 향가’(조광, 1935. 11)에서 小倉의 제자인 重光兌鉉(辛兌鉉)도 역시 처용가를 해독하였다. (30·33).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해방 전까지의 처용가 연구는 처용가의 해독 및 해독법에 대한 것과 그 배경설화에 관한 것이었다. 처용가 해독에 대해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다만 양주동은 小倉의 오류를 지적하고 여타의 학자들이 ‘東京’을 ‘東京’으로 해독한데 비해 ‘東京’을 ‘시불’로 해독한 점이 다르다.

또한 유창선은 小倉 이후 처음으로 삼국유사 소재 향가 14수 전반에 대한 해독이라는 점이 당시의 향가 해독법을 고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처용설화에 대해서는 이능화의 어비대왕 및 바리공주의 설화와 관련한 해석, 이은상의 신화적 해석이나 역사적 사실로의 접근, 손진태와 안자산의 처용가 생성 및 작자 문제에 대한 논쟁, 조운제의 가면회 측면에서의 언급, 최문진의 당시 사회상과 관련한 언급 등 모두 초기 연구로서의 높은 평가를 주저할 수 없는 것이다.

2. 제2기: 처용가 해독의 정리와 문학적 해석의 준비기

제2기는 처용가 해독이 제1기의 것과 별차이 없이 진행되었으며 내용 파악에는 큰 장애가 될만한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문학적 연구는 그리 활발한 편이 되지 못했다.

어학적 해독에는 방중현(34), 정열모(35), 양주동(36), 지현영(37), 김형규(38·40), 이탁(41), 홍기문(43) 등이 있다. 대동소이하나 이탁은 다른 사람과 달리 '脚烏伊'를 '허되(다리)'로 해독하였다. 그리고 홍기문은 '本矣'의 해독을 '아세'로 하였다. 小倉이 이를 '밀이'로 읽는데 대해 양주동은 '본디'로 읽어야 한다고 하고, 그 근거를 '본디'는 원래 '本來'의 한자어휘이니, '牧丹'을 '모란', '次第'를 '차례'로 읽음과 같이 t-1호전의 일례이고, 「계림유사」에도 술을 잘 마시지 않는다는 말을 '本道安里麻蛇'라고 한 '本道'가 바로 이 말이 된다고 하는데서 찾았다. 이에 대해 홍기문은 다음과 같이 논박하면서 '아세'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만일 '本矣'가 '本道'의 기사라면 '本道'내지 기타의 다른 한자로 쓰지 않고 왜 하필 '本矣'라고 썼을까? 했다. 이두의 기사 방법이 대개 맨 끝의 음절은 모음만 쓰기도 한다고 하지만 '本矣'의 '本'과 같이 끝소리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렇게 쓴 예가 없으며 또 실상 그렇게 쓸 수도 없지 않은가? 하면서 그렇다고 '밀'이란 명사에 주격 토를 붙인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하면서 '矣'를 주격 토로 썼다는 것도 얼핏 단정할 것이 못된다고 했다.

그리고 현대어에 '아예'라는 부사가 있으니 한자와 합해서 애初 또는 애當初 등의 말을 이루고 있으며 서남방언과 동남방언에서 '아서' '아세' 등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첫번째 매는 김을 '아시' 또는 '애'라고 하는 바, 이 '아예'라는 부사는 바로 이 말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훈몽자회」에 '飾'자 아래 '아시뵘饋'이라고 하고 다시 주로서 '一蒸飯'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밥을 처음 찌는 것을 '아시'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첫번째 매는 김을 '아시'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일 것이다 하면서, '本矣'를 '본디'의 한자 어휘로 보기보다는 '아세' 또는 '아예'라는 말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문헌에서는 찾지 못했으나 문헌에 나타난 말만이 오랜 것은 아니라 했다.⁷⁾

그리고 홍기문은 「산국유사」소재 향가의 형식을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과 향가

7) 김사엽, 향가의 문학적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79. 9. 348쪽에서 참조

이외의 노래 형식으로 나누고, 서동가, 오라가, 꽃홀가, 도솔가, 처용가 다섯 편을 후자에 넣었다. 즉 처용가를 향가 이외의 노래 형식으로 다루었다. 또한 「삼국유사」의 것과 「악학궤범」의 것을 대비하여 노래의 변이 문제를 제기했다.

「삼국유사」의 것에서 열병 귀신이 아내와 누워 자는 것을 처용이 발견한 전반부는 「악학궤범」의 것과 일치하나 처용의 넓은 덕에 감복되어 열병신이 처용의 얼굴만 보면 피해 갈 것을 맹세한 것이고 후반부는 「악학궤범」의 것과 다르다고 하여 두 노래가 어떻게 해서 분화되었는가, 우리의 재래 전설에 비추어 볼 때 어느 편이 더 원형에 가까운가 하는 것에 관심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여 「삼국유사」 노래 중 제1 제2의 두 구만이 오랜 이전의 민요이고 최종의 한 구는 처용을 라후처럼 변모시킨 이후 추가된 부분이라 하였다.⁸⁾ 또한 처용가를 3구로 다룬 점이 이전의 학자들과 다르다. 그 다음 처용설화에 대해 문학적 해석을 한 이로는 김용구(42), 박종화(45), 최종필(46) 등이 있다. 이들 중 김용구의 ‘처용가연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김용구는 처용의 語義에 대해 언급하기를 「계림유사」의 ‘龍曰稱’에서 稱은 瀾의 오자가 아니고 ‘칭’이라 전제하고 처용은 ‘총’이고, 이는 龍의 뜻이라 했다. 그리고 더 오래 전 脫解傳說에 나오는 ‘龍城國人’ 조항을 인용하여 용을 ‘Ks, Kus, Kut’의 어원을 가진 것이라 하고, 다시 고대 이전의 神格에 비유했다. 또한 처용무에 대해서는

從來의 學者들이 說明한 바와같이 處容歌가 處容의 專門의 民間信仰이 說話에 起因하여 形成된 것이 아니며 處容舞가 處容의 專門的 民間信仰의 發展物도 아니다. 處容이란 名稱이 비록 羅代에 처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惡神의 驅讎에 쓰인 處容舞의인 假面舞는 멀리 三韓時代나 그 以前의 原始時代에 이미 發生한 것이라 본다…….

이러한 原始 假面舞가 羅代에 繼承되어 當時人의 唯一한 信仰인 佛敎의인 敎理乃至는 龍神思想과 結合되어 處容이란 名稱을 띄워 集團의인 假面舞에서 使用되는 그 假面단을 門前에 붙여 辟邪進慶의 具로 하는 專門的인 民間信仰이 成立되었으며 이 儀典을 合理化시키기 爲한 儀典의 說明說話가 發生한 것이다.⁹⁾

8) 홍기문, 향가해석, 과학원출판사, 1956(최철, 향가의 문학적 해석,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 3. 370~376쪽에서 인용).

9) 김동욱, 처용과 처용가, 처용연구논총, 울산문화원, 1989. 12. 89~90쪽에서 재인용.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가면과 관련하여 김재철(21)이 향악잡영 신라오기 중 ‘大面’은 중국·인도 영향의 ‘代面’이라한대 대해 김용구는 그것이 우리 고유의 ‘큰 가면’이고 그 ‘큰 가면’인 ‘大面’이 처용 가면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

제2기의 문학적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못했으나 처용설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김용구에 의해 비롯되었고, 그것은 처용가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홍기문이 방언을 이용하여 ‘本矣’를 ‘아세’로 해독하고 처용가 형식을 3구로 보면서 향가 이외의 노래 형식으로 다른 점이 기존 학자들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문헌에는 찾지 못했으나 문헌에 나타난 말단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는 말이라 할 수 있다.

3. 제3기 : 인접학문을 원용한 처용가·처용설화의 해석 및 종합적인 연구심화기

제3기는 처용가에 대한 문학적 연구의 심화기이며 어느 시기보다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47~143). 양적인 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질적인 면에서도 다각도의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한 것은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장덕순(48)은 처용가를 逐邪의 노래를 보고 원가·현화가와 함께 화랑적인 성격에 가깝지 불교와는 緣이 멀기에 화랑적인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했고, 김승찬(49)은 巫覡이 하는 巫歌 즉 ‘能動天地鬼神’할 수 있는 魔力이 심히 내포되어 있는 사이마니즘계통의 주술적 가요라 했으며, 김동욱(51·52)은 처용을 鍾旭와 韋將軍, 나태, 벽수와 관련짓고 처용설화는 신라 중세에서 왜구에 대하여, 또 관념적으로는 異界에 대하여 신라의 호국용신의 京都에의 降跡說話라고 보여지며, 현강왕대의 현실적인 급간 품계를 받은 처용은 이 용신의 사제자로서의 내방자로 보여진다고 했다. 그리고 처용의 名義에 대하여는 사제자 ‘慈充’설을 주장했다.

어구의 해석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어학적 입장으로 일관해오던 것과는 달리 어학적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시도했다는 것은 어학적 해독의 한계를 극복한 좋은 예로 할 수 있다. 즉 이기문은 처용가 해독에 있어서

이 處容歌의 解讀에 있어 가장 문제되는 것은 마지막 一行이다. ……(중략) …… 종래의 解讀은 이 마지막 一行이 處容의 諦念의 態度를 表示하였다고 說明하여 왔다. 그러나 原始 宗教에 대한 약간의 造詣를 가지고 있는 이라면 惡疫神을 쫓는 處容에 대하여 諦念云云이 얼마나 당치 않은 것인가를 의당 의심해 봄직하다. 三國

遺事의 ‘歌舞而退’는 處容이 물러났다는 과거의 해석과는 反對로 處容이 歌舞하여 물러섰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¹⁰⁾

라고 하였다. 그리고 ‘奪叱良乙何如爲理古’를 ‘아스톨 언더 흐릿고’로 읽고 ‘빼앗임을 어찌하릿고’ 즉 ‘어찌(감히) 빼앗음을 하릿고’로 해석했다. 황패강의 말과 같이 여기서 관심의 대상은 어학적 해독이 어학 분야가 아닌 원시종교의 분야에서 도출될 수 있는 방법론적 제시이다. 어학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점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¹¹⁾

황패강은 ‘처용가고’(53) 이후 수 차례 걸쳐 관심을 가졌다(76·87·102·104·126·175). 황패강은 佛道仙과 무속관념의 다양한 콤플렉스로 된 것이라 하고 門帖한 ‘處容之形’은 실물의 모사물이 실물을 代價하는 원시적 사고에 근거를 둔 민속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고(53), 처용가의 미의식은 皮下感情의인 인간애욕을 止揚한 ‘捨心’의 성취, 바로 그것에 계기하고 있어, 그것은 불교적이며 또 처용이라는 호불호국적인 용자의 형상 즉 용신사상의 신라적 발상을 빌어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신라적이라는 것이다(175).

장주근(54)은 처용 설화의 형성에 근원적인 역할을 한 것이 辟邪 가면으로 보았다. 즉 처용 신앙을 한국 고유의 고대 祭儀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고, 원초의 처용 설화가 그러한 제의의 ‘歌舞’에서 싹튼 것으로 보았다. 그 싹인 초보적 산출에 다시 설명(說明)이 첨가되고, 그 뒤에 또 다시 이것이 망해사 연기 설화로서 윤색되었다고 하고, 그러한 변화 과정에 원시 종교적인 공포에서 詩的인 미화를 이루며 처용의 모습이 점차 관용어로 개변되어 갔다는 것이다. 또 설화상의 장르로 볼 때 원초에는 신화이던 것이 발전해서 연기담 부류의 전설과 신화의 혼합물이 되었는데 그것은 소위 ‘歌’부분위주의 발전이고 ‘舞’부면에서는 원초의 제의상(가면)舞가 후세의 궁중 逐鬼 의식으로 변화하고 분화하여 발전되어 온 것이다 했다.

김사엽(56)은 처용을 용신으로 보았다. 용신이 魔波旬을 굴복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舞를 이용하였으며, 처용의 노래는 拔穰을 위한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무가 주요 노래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처용무는 개운포 지방에 전승되어

10) 이기문.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1961. 65쪽.

11) 황패강. 처용가 연구의 사적 반성과 일시고, 향가여요연구, 이우출판사, 1985. 3 126~127쪽 참조

오던 토속적인 一地方의 열병퇴치무였던 것이 우연히 현강왕의 눈에 머물러 이에 가호를 받고 일보 나아가 전국적인 것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처용은 용안의 가면을 쓰고 열병신을 쫓는 사나이의 뜻이 된다고 하고, 역신이 처용 처를 능욕했다는 것은 처용 처가 열병에 걸린 현실적인 사실을 설화한 것이라 하고, 형식문제를 언급하면서 '後句亡'의 정형에 속한다고 했다.

김영수(57)는 처용을 鍾旭, 韋將軍·나태·백수와 관련시켜 辟邪大神 토지신의 권속으로 보고 처용기는 疫鬼(반신불수병)를 구축해 달라는 발원문이라 했다.

임기중은 처용을 shaman 石 처용암의 巖靈을 받은 당대의 名 shaman으로 보았다.¹²⁾

김열규(63)는 역신과 처용처의 교구를 무당의 가정구조적인 여권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간주하여 무속사회 여권우위의 입장에서 처용의 행위를 파악하였다. 처용 전승을 복합적인 신성전설이라고 하고 용신의 아들로서 표상되는 신이로운 출현에서 비롯된 처용의 생이 마침내 역신을 퇴치하는 의무주술사 및 문신에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에 관한 얘기가 사찰연기설화와 교착되어 있음에 복합성의 정체가 있다고 했다.

여기서 전자는 Hero-story의 유형을 연상시킨다고 하면서 시련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곧 역신을 물리치고자 하는 노력이 가무로써 나타났고, 따라서 이 가무는 주술, 즉 의무적 주술이라야 하고 처용 처는 女性이고, 역신과 처용 처의 交媾를 入巫過程으로 보고 처용기는 주가라야 한다고 했다.

현용준(66)은 처용설화가 고대의 용신출현설화와 개운포 지명 전설에 용신호국사상 및 神人同態觀이 작용하여 龍子輔政說話가 이루어지고, 역신의 傳疫觀念과 그것을 물리치는 驅疫神의 관념이 이에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라 하였다.

김정업(68)은 처용설화가 개운포지방의 남방계 이민족이 신라에 권속하는 것을 설화화한 것이며 그들의 용신사상이 근원이 되었다고 했다.

이우성(70)은 처용설화를 신라말기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시켜 해석하였다. 그리하여 설화를 현실적 반영이라고 보고, 설화에 나오는 못 존재들이 역사적 실재 그것이 아니고 「그것」의 상징일 뿐이라 하여 현강왕의 개운포 행차시 雲霧로 作變한 동해용을 신라 동변에 있는 반증앙적 호족의 상징으로, 신라 망국을 미리 경고

12) 임기중, 신라가요에 나타난 주력관, 동악어문논집 14, 1967. 3.

한 서울 주위의 諸神들을 신라 하대의 지성을 대표하는 육두품계층의 상징으로, 처용 처를 간통한 역신을 타락한 화랑들의 행위, 「병든 도시」의 상징으로 보았다. 그리고 처용입경과 왕정보좌는 신라 하대의 대지방포섭 견제책의 일단으로 보았다. 또한 처용의 歌舞而退의 행위를 신라의 정략에 대하여 보내지는 야유로 보았다. 그리하여 처용가를 지방호족이 중앙거족에 대한 갈등을 노래한 것으로 보았다.

이용범(71)은 처용의 정체를 밝히는 실마리가 용이라 하고, 다시 이 설화 전반의 해석을 「삼국유사」에 보이는 줄거리를 벗어나 「삼국사기」 및 처용에 대한 여말 문인들의 설명을 빌어 자연인이면서 특수한 용모의 소지자였던 처용에 부각시키고, 이는 필시 당말 廣州에서 揚州일대까지의 지역에서 해상무역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슬람상인의 漂着傳説일 것이라고 하였다.

김원경(74)은 처용가가 현강왕 5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하나 그 이전부터 우리 조상이 지니고 온 설화였을 것이라 하고 처용가 속에 나오는 침입자는 인간의 행복을 저해하는 역신이라 하였다. 그리고 처용가는 現今도 우리 겨레의 일부속에 행해지고 있는 병을 사만적 방법으로 驅逐하는 풍속의 震源의 원시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정병욱(82)은 배경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자기목적적(autolelic)으로서 처용가를 살폈다. 즉 처용가가 지니고 있는 희극미가 위대하고 장엄하고 우아한 것이 가소로운 것으로 전락한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수도문학에 저항하는 지방문학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하였다.

강신항(84)은 慈充=處容=중으로 보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계림유사」의 「龍曰稱」을 근거로 하여 龍=處容=稱으로 보았다. 즉 고대국어에서 용을 뜻하는 단어로써 ‘처용’ 또는 이와 유사한 1음절의 단어가 있었던 것으로 가정하고 싶다고 했다.

김완진(85)은 토론에서 강신항의 ‘처용=중’이라는 가설을 반박했다. 즉 사마니즘에서 사제자를 중이라 부르는 확실한 근거가 없고, ‘처용=중’이 성립하려면 유기자음과 무기자음의 구별이 없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의심스럽고 ‘처용=稱’이라 하는데 이와 유사한 어휘가 문헌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용을 미르라고 한 것으로 보아 ‘稱’은 ‘彌’의 오기로 보아진다고 했다.

이기문(86)은 토론에서 김완진의 견해와 대체로 같다고 하면서 고유명사의 어원론은 매우 어렵고 모험적인데, 특히 처용을 용으로 볼 수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황폐강(87)은 호불호국적인 용신 신앙의 입장에서 처용을 호불의 용신으로 보고, 처용의 輔政은 불교적인 교화의 가무에 의한 것이라 하여 歌舞而退는 역신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歌舞自退함으로써 捨心은 성취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처용의 門神化, 처용가의 呪歌視, 처용에 대한 무속적·주술적 이해는 향가 처용가 생성이후에 사실로서 본래적이라기보다는 후래적인 요소로 파악되고 처용의 이슬람 상인視의 논의는 원전 설화와는 무관한, 논의가 박약한 것이라 하였다.

이두현(88)은 처용이 『門帖處容之形』으로 邪惡을 물리치는 辟邪의 呪力을 가질 뿐더러 일면 '제왕'으로서 사악을 짚어지고 대신 버려짐으로 善을 맞이하게되는 進慶의 힘을 갖는 복합적인 신격이라 하고, 처용무는 호국신인 용신을 제사지내는 용신가면무에서 영향되었을 것이며 山水神祭舞를 복합한 모체였다고 하였다.

김열규(89)는 처용전승을 신성전설로 다루어야 한다고 하고, 그것은 倉刹의 연기전설이고 역신포치기능을 지닌 문신의 由源에 관한 전설이라 하였다. 처용전승을 '本풀이'로 본 견해는 타당하다고 하며, 역신을 물리치고자 노력하는 가무는 醫巫的 呪術이어야 하므로 처용가는 마땅히 呪歌라야 한다고 했다.

김동욱(90)은 토론에서 처용설화연구는 마치 한국민속학의 발전단계를 제시한 것 같다고 하고 대왕암-감은사-석굴암과 같은 유형을 갖고 있는 처용암-망해사-영취산의 이러한 것은 암석신앙과 관계있고 四神과 관계있다고 하였다.

문상희(91)는 처용설화를 종교사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처용문학, 처용설화, 처용가무, 처용가면 등의 여러가지 표상의 밑바닥에 처용신앙이 깔려있다고 보고, 처용신앙을 辟邪의 주술적 신앙이라 하였다. 그리고 처용신앙이 행위적으로 곧 祭儀의 양식으로 표현된 것이 처용가와 처용무라 하였다.

장주근(92)은 처용가가 '나'라는 일인칭으로 일관되어 있어, 이것을 무당노래의 '공수' 즉 신탁으로 보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상일(93)은 연극발생사적인 면에서 말하겠다고 하고, 이두현의 발표가운데 처용무가 一人舞 → 二人舞 → 五方處容 순서의 종합가무극으로 집성되었다고 한데 대해 어떻게 해서 일인무에서 다시 이인무로 되었는가? 이런면에서 드라마의 대립적 요소가 구체적으로 지적된다고 하고, 다음 처용가의 전승이 전개되어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은 한국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고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고대인들의 사유가 변천해 온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초자연적 존재 → 동물형태 → 인간형태'의 과정에서 처용의 龍子라고 하는 것이 神體顯現이 인간화되어 가는 그 과정에 용으로 나타나

는 현상으로 파악했다.

김태곤(94)은 처용에 관한 문헌자료를 부분적으로 논하기 전에 전체적인 성격 파악, 그 구성체계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하고 처용설화·처용전승 등 용어의 통일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처용에 관한 「삼국유사」 문헌자료는 용신신앙을 중심으로 한 신화의 문헌정착이후 정착 과정에 망해사 유래담이 삽입 조화된 것이라 하였다.

김광일(95)은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처용설화의 기록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원초적인 외디프스 콤플렉스의 표현으로 보았다.

이기백(96)은 이용범의 견해에 대해, 이것은 역사학 분야에서 거의 잊어버린 분야라고 하면서 국정참여를 아라비아 상인의 理財術에 결부시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하고 차라리 종교적인 가능성에 더 있는 것이 아닐까 하였다.

박노준(98·158)은 동해용이나 용자 처용을 모두 靑으로 보면서도, 처용랑 망해사조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현강왕대가 신라 말기에 해당되는 시기로서 변영과 호화를 구가하는 한편으로 유락·탐닉·퇴폐의 풍조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던 시대라 하고 처용가는 그러한 사회적 현상이 빚어낸 가요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김종우(101)는 처용가를 일종의 불교적 呪言이라 하면서, 천하 태평을 구가하고 또 희원하는 목적에서 창작된 것이라 하였다.

이상비(105)는 처용이 동부 지방의 남자 무당이었고, 처용 처는 바리공주로 열병에 걸려 죽은 것을 회생을 바라는 斷腸의 가무에 처용의 즉흥적 애절의 가사가 더해져 비원의 굿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설성경(106)은 장성 처용설화와 함께 미모의 여인을 사이에 둔 남성간의 갈등으로 다루면서 처용을 용신이면서 터주신으로 보았다.

김택규(107)는 개운포·동해용·망해사 창건·용자 처용 등의 재요소를 용신신앙이 산악사원으로 습합되어가는 과정의 한면으로, 포석정과 남산신, 금강령과 북악신, 동례전과 지신에 관한 것을 불교화 이전의 산신·지신에 대한 제의의 일면으로 가상하였다. 전반부를 개운포의 처용도를 중심으로 관행되어 온 용신제의 전설로 이해하고 동해 용신 7자를 성역 처용도 일대의 제사 집단으로 보았다. 따라서 처용을 동해용신으로 扮한 主巫에 한 사람으로 간주하였다. 그리하여 助巫로써 왕실 총애를 받고, 그 형상으로 문신 처용가면이 다시 인격가면으로 변하고 나중에 除厄用의 허수아비로 되다가 아녀자의 오락으로 변했다고 하면서 가면무·처용무·지백금간무·상심무·옥도령무에 대한 기록은 가면의 변이 과정을 말해준다고 하였다.

서대석(109·201)은 처용을 동해용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강신무로, 역신을 역병을 주는 귀신으로, 간통을 처용 아내가 역병에 걸린 상태로, 처용의 가무를 치병의례의 주술적 성격으로 다루었다. 그리하며 처용가를 주술무가라 했다.

윤경수(113)는 처용가를 불교사상으로 규명해놓은 것은 아전인수격이라 하면서, 그것을 무속으로 보고, 그 본령인 음양사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즉 처용가는 가무인 陽으로 隗인 陰이 퇴치되는 무속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동일(119)은 처용설화를 사람이 신격의 가면을 쓰고, 그 신격의 춤을 추는 곳으로 보고, 이 곳은 국가적인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서 거행된 것으로 보았다. 이 재앙이 역신으로 상징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처용굿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극으로의 전환을 겪는 연극이 되었는데, 신라 때에는 하층민의 연극이 아닌 귀족이 출연자 노릇을 하는 귀족의 연극이 존재했다고 하였다.

김학성(128·129·208)은 처용설화가 민담성격의 순수 민중설화로 출발하여 새로운 이질적인 모티브를 수용하면서 복합설화로 변이 정착된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처용은 설화 형성 대대(현강왕이전)의 실존 인물이며 강자(권력상층)에게 침해 받는 민중(약자)의 상징적 인물이라 하면서, 처용가는 민요격 향가로 민중의 비극적 현실을 골계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 하였다.

윤영욱(131·132·133)은 처용관계설화가 역사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의식적 신물인 설화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 하고, 처용은 호국 용신에서 수문신으로 모습을 바꾸며, 역신 퇴치의 구역신으로도 변모하며, 또 호국신의 모습과 동시에 생산신의 자태도 나타내 준다고 했다. 처용관계설화는 병자를 앞둔 의무가 처용신의 신성이 현현하기를 바는 일종의 의식으로도 이해되며 의무신격의 근원을 서사하는 것이기도 하고, 처용가는 서사의 핵이 되는 것이지만 처용을 관념적 소산으로 볼 때 후인의 작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최성호(139·174)는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당대의 禮俗史, 가족제도사, 女俗史, 부락관습사 등을 고찰하며 처용을 용성국인 변방족이면서 男巫로 보았고, 처용 처는 토착족 무녀 출신의 유녀라하고 역신은 토착족의 男巫로서 명소에 처용 처를 흠모하거나 서로 잘 알고 지내왔던 자라 하였다.

이와 같이 제3기는 처용가 및 처용설화에 대한 연구가 깊어졌고, 여러 방법이 적용되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 예로 대동문화연구원의 '처용설화의 종합적 고찰(발표·토론)의 대회에서 어문학적 접근, 민속학적 접근, 역사학적 접근으로 발표하고 그리고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3기는 처용의 語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처용가 해독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학적 해독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처용 정체의 파악을 위해서 여러 방법이 원용되어 처용의 정체가 각양 각색으로 나타나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처용가는 화랑적인 시가(장덕순), 주술적 가요(김승찬), 역귀를 구축해 달라는 발원문(김영수), 呪歌(김열규), 불교적 呪言(김종우), 신라 말기의 사회적 현상이 빚어낸 가요(박노준)라는 등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것이다.

그리고 처용설화 해석도 호국용신의 京都에의 降跡說話(김동욱), 佛道仙과 무속 관념의 다양한 콤플렉스(황폐강), 설화 형성에 근원적인 역할을 한 것은 辟邪 가면(장주근), 복합적인 신성 전설(김열규), 남방계 이민족이 신라에 권속하는 것(김정엽), 설화에 나오는 못 존재들이 역사적 실재가 아닌 상징(이우성), 이슬람상인의 漂着傳説(이용범), 현강왕 5년 이전부터 지니고 온 것(김원경), 남성간의 갈등(설성경), 용신제의 전설(김택규), 신격이 춤을 추는 곳(조동일), 민담성격의 민중 설화에서 복합설화로 변이 정착된 것(김학성), 의식의 산물(윤영욱) 등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고구 하였다.

특히 이 시기 연구의 방향은 민속신앙적 관점이 활기를 띠고 있다.¹³⁾ 그리고 불교신앙적 관점(황폐강·김시엽), 역사·사회사적인 관점(장덕순·이용범·김정엽·박노준·최성호), 연극학적인 관점(조동일), 설화적 관점(김태근·설성경·김학성·윤영욱), 심리학적 관점(서정범·김광일) 등 인접학문을 원용한 종합적인 연구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 시기에 처용가 연구는 그 배경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진척된 경향이 드러난다. 그런 반면 처용가 작품의 배경설화나 민속적 요소나 역사적 사실 등 일체의 외적 요소를 배제하고 독립된 시가로서 처용가를 고찰하기도 했다(정병욱). 그러나 일체의 배경적인 이해를 배제하고 순수 문학으로만 연구하는 데도 문제는 있다. 고시가의 생성 요인을 보면 특히 처용가 등의 갈래에 속하는 노래는 '環境'이 계기가 되어 제작된 노래들이다. 따라서 그렇게 생성된 노래를 그 생성의 원인과 환경이 된 사실과 절연시켜, 근대의 문학목적적인 작품들과 같은 기준에서 순수히 문학적으로 논의한다는 일은 실제로 불가능하여 무의미한

13) 이 시기에 민속신앙적관점에서 연구한 이로는 김승찬, 김동욱, 장주근, 김영수, 김열규, 임기중, 현용준, 문상희, 김원경, 이상비, 김택규, 김종우, 서대석, 윤경수 등이다.

일이 아닐 수 없다.¹⁴⁾

이와같이 제3기는 처용가·처용설화에 대해 폭넓은 인접학문의 원용에 의한 해석과 종합적인 연구의 심화기라 할 수 있는 시기이다.

4. 제4기: 처용가 해독의 재검토 및 문학적 해석의 새로운 탐색기

제4기는 처용가 해독의 부분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처용설화 해석에 있어서 비교 검토가 행해지고, 그리고 처용가 해석의 새로운 탐색이 있는 시기이다.

김갑기(144)는 처용가가 용신·祖神사상이 불교의 齊釋信仰과 깊이 밀착되었다고 보았다. 당시 개운포에서 용신제가 행해지고 그 용신제 主祭司巫가 처용신을 招神儀行하여 同還했다고 보고 헌강왕이 娶妻케 한 미녀가 바로 용신제를 지냈는데 그 미녀는 主司祭巫이자 그의 처가 되기에 미녀는 善巫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의 결합은 人神交合說의 표상이라 하고, 그녀가 역신에 간벌되는 것은 역신에 의한 夢姦형태라 했다. 그러므로 처용설화는 처용신이 벽사문신이란 민간신앙심상을 날기까지의 배경담이요, 처용가는 설화의 시화이며 처용무는 呪神力的 절대성을 표상한 心象信念이라 하였다.

전규태(146)는 외방의 사내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동침하는 아내를 처용이 겸손하게 逐邪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가벼운 체념을 하는 태연스러운 태도는 이 무렵에 있어서 유부녀가 다른 사내와 외도를 하는 일이 그렇게 큰 허물이 아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이것은 모계 사회의 잔존적인 유풍에서 유지되었는지도 모를 아내의 우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처용가는 신라 사회가 풍요로움 속에서 으레 일어나기 일쑤인 性的 타락과 고대인의 관능추구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김완진(147)은 향가 해독의 구체적 방법론의 기준을 설정하여 선학들에 비해 객관적으로 해독을 시도했다. 즉 해독의 준거를 ① 一字一音의 원리, ② 訓主音從의 기준, ③ 脈絡一致의 기준, ④ 律調의 기준 등으로 하여 향가 전반을 해독하면서, 처용가를

14) 황폐강(175), 향가어요연구, 황폐강·박노준·임기중 공편, 이우출판사, P. 185, 128쪽.

東京 불기 드라타 밤 드리 노니다가
 드러사 자리 보곤 가로리 네히러라
 두보른 내해엇고 두보른 누기헨고
 본디 내해다마리논 이사놀 엇디헨릿고

로 해독하였다.

송재주(149)는 망해사창건연기전설이 망해사라고 하는 중심기념물에 현강왕대라고 하는 역사화의 의상을 입고 일연의 상상과 筆墨을 통하여 시현된 것이며, 이 전설에 동류적 특징적 요소로 처용가설화와 가사를 실증적 유물로써 일연에 의해 채록 삽입된 것이라 하고, 처용가는 고려초(광종~문종)에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임기중(151·188·212)은 盲兒得眼歌와 處容歌의 창작 내지 가창의 발상은 治病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처용설화의 〈疫神→人間→疫神〉이란 관계는 원형회귀적인 표출 태도인데, 역신은 역신 이상도 이하도 아닌 역신 그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했다. 따라서 “疫神歛慕之 變爲人…… 竊與之宿”이란 “열병을 앓는 처용 처”를 전통적인 관념적 표현법을 써서 具體化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처용이 처의 治病을 위해서 “作歌”하고 “唱歌”했다는 것은 民家呪詞과 같은 발상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 했다(151). 그리고 처용설화를 첫째, 동해용이 처용으로 변신, 둘째, 천연두가 역신으로 변신, 셋째, 처용과 역신이 변신 대결, 넷째, 대결의 결과, 다섯째, 처용이 상승 전진적인 변신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살피고, 그 결과 동해용 → 용의 아들 처용 → 인간 처용 → 문신 처용으로 상승적 고정이 되고, 천연두 → 역신 → 인간 → 천연두로 하강적 회귀를 한다고 하면서 처용이야기는 동해용의 변신인 처용이 천연두의 변신인 역신을 물리친 천연두의 퇴치담으로 보았다(188·212).

정삼균(156·172)은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고구하였는데, 처용랑조의 설화는 의식(용자)으로서 무의식이 본능(역신)을 제압하고, 모계의식을 극복한 부계의식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준 예라 하고, 처용가는 최초로 여성과 작별을 선언한 노래로 새로운 남성 세계의 전개와 남성 문화를 꽃피우고 남성적 세계를 노래하는 정신세계라 하였다.

김승찬(155·178)은 처용이 개운포에서 배풀어진 동해 용신체의에 참가했던 사제자 가운데 한 남무이거나 주무에 종속한 助巫로서 가무에 능통했던 인물이고, 처용가는 서사무가 속에서의 단편적 서정가로 볼 수 있을지언정 결코 呪詞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박진태(164·173·191·211)는 처용과 아내와 역신이 극중인물로 등장하는 처용가무는 서라벌에서 형성되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고 하면서, 처용가무는 1인 극적인 제1유형에서 2인극적인 제2유형을 거쳐 3인극적인 제3유형으로 발전하여, 가면의 첨가와 수의 증가에 의해 갈등구조가 복잡해지고 내용이 풍부해지는 가면극의 일반적인 발전과정과 일치한다고 했다. 또한 처용은 현강왕이나 진골귀족을 대변하고, 역신은 육두품이나 지방호족세력을 상징하며, 처용가는 현강과 자신이나 현강왕의 의식을 대변하는 자가 지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강왕이 도전세력을 포용하거나, 무마할 능력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굿을 통해 위기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굿 속에서나마 처용가는 체념과 패배의 노래가 아니라 대결의식을 지닌 위협과 공갈의 呪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 했다.

岡山 善一郎(165)은 일본의 道祖神신앙과 비교검토하여 道祖神 신앙은 처용신과 장승을 합친 것과 일치하며, 이것은 性的 대우에 의한 벽사관념에서 형성되었다고 하고 역신과 처용처의 交媾는 질병의 전염이 아니라 근원적 벽사관념의 표현이라 하고 향가 처용과 그 자체로서 呪歌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다.

최철(171·207)은 처용설화가 불교 신도들에 의해 불교사상으로 이용되기 이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라 하면서 처용의 처에 대한 역신의 존재는 악하고 더러운 것, 아름답음에 대한 상대적 존재로 표현되었기에 이 노래 해석도 반드시 불시의 침입자인 역신에 대한 분노에 찬 폭로와 풍자가 깃든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 했다. 그리고 처용가를 3장으로 파악하면서 후구가 없다고 보는 견해는 잘못이라 했다.

이어령(176)은 처용이 풍류객, 현자-바보, 춤을 상징하는 신, 醫神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처용무는 天舞가 되는 셈이라 하였다.

김진영(182)은 연구 경향별로 검토하면서 처용설화와 처용가 문맥에 대한 앞으로의 진척된 연구는 문맥의 복합성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탐색, 규명과 그에 부합하는 해석 방법론의 수립이 과제로 우선 요구된다고 했다.

시립무용단(187) 주최 심포지움에서 최진원은 “처용가의 신화상징성”이란 제목으로 발표하는 가운데 “公不現怒 感而美之”의 해석을 “내가 당신의 안해를 범하였는데, 당신은 노여움을 나타내지 않고, 나의 행위를 감지하여 노래와 춤으로써 형용(형상) 하였으니”로 새롭게 해석하였다.¹⁵⁾

15) 박기호, 「처용령망해사」와 「처용설화」의 연구, 한양어문연구 제6집, 한양대한양어문연구회, 1988. 12. 62쪽 註참조

박기호(189)는 삼국유사의 「처용랑 망해사」와 개별전승된 「처용설화」를 분리하여 고찰하여 개별전승으로서 처용설화는 처용의 개인이 벽사진경을 맡는 신격이 되는 과정을 기술한 본풀이로 보면서 노래의 주술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주술가요임이 틀림없다고 했다. 그리고 처용전승을 민간차원과 국가차원으로 나누어 전승되었는데, 무교신앙적 요소가 본조의 용신앙 등의 불교적 요소와 무리 없이 혼용될 수 있었던 것은 화합과 통일을 지향하는 화엄밀교의 논리 아래서 가능했다고 보았다.

M. 칸수(190·205)는 증세 아랍 문헌 속에 나타난 아랍-무슬림들의 신라 내용에 관한 대표적 기술 몇 가지를 추출하여 통일신라시대에 한반도와 이슬람제국간에 人的 내왕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처용을 아랍-무슬림 상인이라 하였다.

고정의(192)는 기존 해독들을 비교 검토하면서 ‘東京’을 목적어로, ‘明期’를 타동사로 ‘月良’을 ‘달아’로 ‘奪叱良乙 何如爲理古’의 주어를 나(처용)로 보고 ‘빼앗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해독함으로써, 처용가가 처용이 달에게 묻고 하소연하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해독을

東京 불기 드라
 밤드러 노니다가
 드러사 자리보곤
 허튀 네이아라
 두브른 누기행고
 미티 내히이다마르 논
 이사는 엇더호리고

로 하였다.

김경수(194)는 처용설화 및 처용가에 대한 논문을 수합하여 이를 다섯 항목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조평환(209)은 불교적 용신사상을 토대로 하여 처용가와 그 신문 내용을 고찰하면서 처용은 法行龍이고 처용의 가무는 교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했다.

최재남(213)은 처용설화와는 절연한 입장에서 처용가 자체의 시적 성격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처용가를 두개의 구를 묶어서 앞의 둘은 현실적 상황, 뒤의 둘은 내면적 갈등이 야기된다고 하면서, 이 노래의 미학은 바로 적극적인 화해 혹은

적극적인 관용에 핵심이 있는데, 이를 달리 善白寬譬의 미학이라 했다.

이상과 같이 제4기는 처용설화 내지 처용가 해석의 접근 방법이 제3기의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처용가 해독은 전대에 비해 논리적인 검증 방법으로 타당성있는 논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처용가 해석 내지 해독 중 논쟁의 관심사인 끝 구는 계속 다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학적 해독의 한계를 극복하는 처용가 해독으로 기존의 해독과는 달리 처용설화 내용과 부합여부, 문장성분상 적절여부를 검토하여 몇개의 어휘를 재검토한 것은 의의를 부여해 볼만한 것이다. 그리고 처용가 연구의 국제성이다. 제1기의 초기는 주로 일본 학자에 의해 해독이 주도되었는데 비해 제4기는 그런 한계를 벗어나 다른 외국 학자까지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처용가가 세계적인 문학의 요소를 충분히 갖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동시에 처용설화 및 처용가 해석에 새로운 탐색이 있었던 시기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마무리

지금까지 발표된 처용설화 및 처용가에 대한 연구 논문을 통시적으로 개관해 보았다. 그러나 이 방면의 연구 업적들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망라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거론하지 못한 논문들도 있다. 이는 연구 경향별로 검토할 때, 더 분발하여 수집·탐독하고자 한다.

처용설화 및 처용가에 대한 해석이 천태만상인 것은 그 만큼 그것이 복잡다기한 것임을 말해준다. 그러기에 국문학 어느 작품보다 많은 연구가 있었고 논쟁의 주대상인 것이다. 동시에 한국적면서도 세계적인 문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처용(가)에 대한 연구자들의 다양한 견해는 문제의 해결보다는 새로운 의문이 제기로 나아갔다. 기존 연구의 계승으로 합의 도출된 부분도 있지만 어느 한 방법으로 복잡한 현상에 대한 심층모형을 탐색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기술된 현상의 복잡성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하여 종합하는 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처용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것을 밝혀 내기 위해서는 먼저 처용의 語義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이 있어야 하겠고, 처용설화, 처용전승, 처용전설, 처용기록 등 용어의 설정에 따라 그 용어 의미의 선입관에 따른 해석의 다른 방향, 어학적 해독 뿐 아니라 그외 방법을 동원한 해독 및 노래의 해석, 처용설화의 문헌적 정리와 비판, 처용의 역사적 전개, 신라 처용가가 고려 처용가에

꺼어든 이유, 8구 가운데 왜 6구가 끼어들었는가, 삼국유사의 향가 중 처용가만 연서되었는가 등의 문제를 고구하여 할 것이다.

■ 처용관계논문목록

1. 金澤庄三郎, 이두의 연구 - 처용가해독 -, 조선회보 4, 조선총독부 1918. 4.
2. 鮎貝房之進, 서동요·풍요·처용가 해독, 조선사강좌 1~3, 1922. 9~11.
3. 권덕규, 처용가해독, 조선어문경위, 광문사, 1923. 5.
4. 신채호, 조선고래의 문자와 시가의 변천 - 처용가해독 -, 동아일보, 1924. 1. 1
5. 이능화, 조선무속고 守門將조, 계명 19호, 1927.
6. 小倉進平, 향가 및 이두의 연구, 경성제대, 1929. 3.
7. 이은상, 향가의 가요사적 지위, 현대평론, 1929. 3.
8. 조운제, 삼국시대의 가무회, 신흥 창간호, 1929. 7.
9. 前間恭作, 小倉著 '향가 및 이두의연구'에 대하여, 史學雜誌 40권 7호, 1929. 7.
10. 前間恭作, 처용가해독, 조선 172, 조선총독부, 1929. 9.
11. 高橋亨, 小倉문학박사著 '향가 및 이두의 연구'를 읽다, 경성일보, 1929.
12. 土田杏村, 記紀歌謠에 있어서의 신라계 가형의 연구, 국어국문의 연구 39~40, 1929. 9.
13. 문일평, 처용의 가무, 조선일보, 1929. 11. 24~28
14. 손진태, 처용랑전설고, 신생 16, 1930. 1.
15. 안자산, 처용가에 就하여, 신생 18, 1930. 3.
16. 손진태, 동경과 처용가에 就하여 - 안자산에게 답함 -, 신생19, 1930. 4.
17. 조운제, 신라시대의 가면극, 신생 1930. 5~6.
18. 손진태, 다시 처용전설과 동경에 대하여, 동아, 1931. 7.
19. 안자산, 처용가에 대하여, 조선, 조선총독부, 1931. 7.
20. 안 환, 산대회와 처용무와 儺, 조선 201, 1932. 2.
21. 김재철, 처용무, 조선연극사, 조선어문학회, 1933. 5.
22. 조운제, 조선시가의 원시형, 조선어문, 1933. 7.
23. 최문진, 향가와 조선문학의 여명기, 신동아, 1935. 1.
24. 이 탁, 조선문자와 향가, 조광, 1935.
25. 송석하, 처용무·나래·산대극의 관계를 논함, 진단학보 2, 1935. 4

26. 신라의 향가 해석, 신동아, 1936. 5~9. 5회 연재
27. 조운제, 시가의 형식적 분류, 진단학보 6집, 1936.
28. 김태준, 처용가, 고려가사, 학예사, 1939. 4.
29. 양주동, 처용가석주, 동아일보, 1939. 10.
30. 신태현, 향가의 신해독, 조선, 조선총독부, 1940. 1.
31. 송석하, 처용무·나례·신대극의 관계를 논함, 羊島史話와 樂土滿洲 1, 滿鮮學海社, 1942. 1.
32. 양주동, 처용가, 조선고가연구, 박문서관, 1942. 11.
33. 신태현, 小倉박사와 향가연구 -그의 정년 기념 강연에 제하야- 춘추, 1943. 3.
34. 방종현, 서동요·처용가 해독, 훈민정음통사, 일성당서점, 1946. 1.
35. 정열모, 새로 읽는 향가, 한글99(12권1호), 한글학회, 1947. 3.
36. 양주동, 처용가,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1947. 4.
37. 지현영, 처용가, 향가여요신석, 정음사, 1947. 8.
38. 김형규, 헌화가·처용가·제망대가·천수대비가·예경제불가해독, 국문학사, 우리어문학회, 1948. 8.
39. 장지영, 향가강의, 유인물, 1953.
40. 김형규, 처용가, 고가주석, 백영사, 1955. 8.
41. 이 탁, 향가신해독, 한글 114, 1956.
42. 김용구, 처용가연구, 졸업논문집 1 충남대, 1956. 9.
43. 홍기문, 향가해석, 과학원출판사, 1956.
44. 양주동, 처용가, 조선고가연구(증보판), 박문출판사, 1957. 3.
45. 박종화, 처용가, 신라인의 思惟, 현대문학 37, 현대문학사, 1958. 1
46. 최종필, 처용가에 대한 문학적 고찰, 국어국문학보 1, 동국대, 1958. 12.
47. 송석하, 한국민속고, 일신사, 1960.
48. 장덕순, 국문학통론, 신구문화사, 1960
49. 김승찬, 처용가소고, 문리대학보 3, 부산대, 1961. 3.
50. 서정범, 고전문학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시론, 현대문학 75, 1961. 3.
51. 김동욱, 처용가 插疑, 시용향악보가사의 배경적 연구, 진단학보 17호, 1961.
52. 김동욱, 처용가 연구, 동방학지 5, 연세대, 1961. 6.
53. 황패강, 처용가고, 국어국문학 26, 국어국문학회, 1963. 6.
54. 장주근, 처용설화의 연구, 국어교육 6,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63. 10.

55. 김준영, 처용가, 鄉歌詳解, 교학사, 1964. 2.
56. 김사엽, 신라인의 용신 사상과 처용가, 權域 1, 大阪外大, 1964.
57. 김영수, 처용무와 처용가, 불교학보 2, 동국대, 1964.
58. 유시명, 처용가의 逸話 - 신라의 향가 중에서 - 숙대신보, 숙명여대, 1964.
59. 김형규, 처용가, 고가요주석, 일조각, 1965. 3.
60. 김소강, 처용가 소고, 숙대신보, 숙명여대, 1965. . 4
61. 김근수, 처용가, 교주여요, 1965. 10.
62. 김학주, 鍾馗의 演變과 처용, 아세아연구 20, 고려대, 1965. 12.
63. 김열규, 처용전승시고, 낙산어문 1호,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66. 3.
64. 김선기, 꽃 얼굴 노래, 현대문학 155, 1967. 11.
65. 전규태, 처용가, 고려가요, 정음사, 1968. 3.
66. 현용준, 처용설화고, 국어국문학 39·40 합병호, 1968. 5.
67. 박병채, 처용가, 고려가요어석연구, 선명문화사, 1968. 10.
68. 김정업, 처용설화의 형성고, 어문학논총 8, 조선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68. 12.
69. 김종오, 옛노래 감상 - 처용가-, 벗 13, 수도공고, 1968. 12.
70. 이우성, 삼국유사소재 처용설화의 일본석-고려 기인제도의 기원과의 관련에서 - 김재원박사 회갑기념논총, 을유문화사, 1969. 3.
71. 이용범, 처용설화의 고찰 - 當代 이슬람상인과 신라-, 진단학보 32, 진단학회, 1969. 12.
72. 김종오, 처용가, 수도공고교지 13, 수도공고, 1969.
73. 문덕수, 처용단장과 기타, 현대시학 9, 현대시학사, 1969.
74. 김원경, 처용가의 변천과 Shamanism에 관한 연구 - 특히 처용가의 설화성과 민속신앙을 중심으로-, 논문집 3, 서울교대, 1970. 6.
75. 木下禮仁 역, 삼국유사소재의 처용설화의 일본석 - 고려기인제도의 기원과의 관계에서-, 이우성 書, 조선연구연보 12, 1970. 7
76. 황패강, 처용과 처용암, 처용촌 1, 1970. 10.
77. 김영태, 처용단장에 관한 노트, 현대시학 16, 1970.
78. 김 현, 신화적 인물의 시적 변용 - 처용의 의미-, 문학과 지성 2, 일조각, 1970. 11
79. 서정범, 처용가의 새로운 해석, 계명 1-10, 1970. 12.
80. 서정범, 처용가고, 아세아여성문제연구 9, 숙명여대, 1970. 12.
81. 이우성 외, 처용설화의 종합적 고찰 - 한국학 방법론의 검토를 위한 제1회

- 학술심포지움(종합토론)－, 대동문화연구(별집1) 성균관대, 1972. 6.
82. 정병욱, 문학으로 본 처용가, 대동문화연구(별집1), 성균관대, 1972. 6.
83. 이용범, 처용설화의 일고찰－當代 이슬람상인과 신라－, 대동문화연구(별집1), 성균관대, 1972. 6.
84. 강신항, 처용의 어의, 대동문화연구(별집1) 성균관대, 1972. 6.
85. 김원진, 처용설화의 종합적고찰(토론), 대동문화연구(별집1), 성균관대, 1972. 6.
86. 이기문, 처용설화의 종합적고찰(토론), 대동문화연구(별집1), 성균관대, 1972. 6.
87. 황패강, 처용설화의 종합적고찰(토론), 대동문화연구(별집1), 성균관대, 1972. 6.
88. 이두현, 처용가무, 대동문화연구(별집1), 성균관대, 1972. 6.
89. 김열규, 처용전승고－민속학적입장에서－, 대동문화연구(별집1), 성균관대, 1972. 6.
90. 김동욱, 처용설화의 종합적 고찰(토론), 대동문화연구(별집1), 성균관대, 1972. 6.
91. 문상희, 처용설화의 종합적 고찰(토론), 대동문화연구(별집1), 성균관대, 1972. 6.
92. 장주근, 처용설화의 종합적 고찰(토론), 대동문화연구(별집1), 성균관대, 1972. 6.
93. 이상일, 처용설화의 종합적 고찰(토론), 대동문화연구(별집1), 성균관대, 1972. 6.
94. 김태근, 처용설화의 종합적 고찰(토론), 대동문화연구(별집1), 성균관대, 1972. 6.
95. 김광일, 처용설화의 종합적 고찰(토론), 대동문화연구(별집1), 성균관대, 1972. 6.
96. 이기백, 처용설화의 종합적 고찰(토론), 대동문화연구(별집1), 성균관대, 1972. 6.
97. 고병익, 처용설화의 종합적 고찰(토론), 대동문화연구(별집1), 성균관대, 1972. 6.
98. 박노준, 처용랑망해사조의 주맥, 문화비평 13, 아한학회, 1972. 7.
99. 박태순, 처용－영원한 한국인－, 샘터 30, 샘터사, 1972. 9.

100. 정연옥, 현대에 투영된 처용랑, 同大語文 2, 동덕여대, 1972. 11.
101. 김종우, 불교의 용관념과 처용가, 睡蓮 7, 부산여대, 1972.
102. 황폐강, 처용가의 미의식, 국어국문학 61, 1973. 7.
103. 調查室, 처용가의 현장 -개운포-, 문학사상 14, 1973. 11.
104. 황폐강, 처용가연구의 史的 반성과 일시고, 고전문학연구 2,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74. 3.
105. 이상비, 처용설화의 종합적 고찰, 국어국문학연구 1, 원광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74. 10.
106. 설성경, 처용전승의 구조적 연구, 한국민속학 7, 민속학회, 1974. 12.
107. 김택규, 회고와 전망(처용가의 발상지), 신라시대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74. 12.
108. 윤홍노, 날개와 처용가와의 거리, 문학사상 32, 문학사상사, 1975. 5.
109. 서대석, 처용가의 무속적 고찰, 한국학논집 2, 계명대한국학연구소, 1975. 6.
110. 김종우, 불교의 용관념과 처용가, 향가문학연구, 이우출판사, 1975.
111. 러증동, 고려 처용노래 연구, 고려시대의 언어와 문학, 한국어문학회, 1975. 10.
112. 김태근, 처용설화의 형성체계, 국어국문학회 월례발표회, 1975. 11.
113. 윤경수, 처용가에 현대적 고찰, 현대문학 253, 현대문학사, 1976. 1.
114. 엄원대, 처용에 대한 종합적 고찰, 국어국문학연구 3,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1976. 3.
115. 김근수, 향가해독의 현위치 -주로 처용가를 중심 삼아- 도남 조운제 박사 고회 기념 논총, 형설출판사, 1976. 4.
116. 전규태, 처용가, 논주향가, 정음사, 1976.
117. 처용설화의 종합적 고찰(토론), 고전문학을 찾아서(소재영·황폐강·김영규·조동일 편), 문학과 지성사, 1976. 8.
118. 김상억, 처용가고, 국어국문학 72·73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76. 10
119. 조동일, 처용가무의 연극사적 이해, 연극평론 15, 연극평론사, 1976. 12
120. 처용설화의 종합적 고찰(발표·토론), 향가연구(국문학논문선 I), 민중서관, 1977. 4.
121. 강신항, 처용의 어의, 향가연구(국문학논문선 I), 민중서관, 1977. 4
122. 정병욱, 문학으로 본 처용가, 향가연구(국문학논문선 I), 민중서관, 1977. 4
123. 이용범, 처용설화의 일고찰 -當代 이슬람상인과 신라-, 향가연구(국문학논

문선 I) 민중서관, 1977. 4.

124. 이두현, 처용가무, 향가연구(국문학논문선 I), 민중서관, 1977. 4.
125. 김열규, 처용전승고 -민속학적인 입장에서-, 향가연구(국문학논문선 I), 민중서관, 1977. 4.
127. 장덕순·이어령 대담, 처용가, 고전의 바다, 현암사, 1977. 11.
128. 김학성, 삼국유사소재 설화의 형성 및 변이 과정 시고 -향가와 관련설화를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2, 서울대국어국문학과, 1977. 12.
129. 김학성, 처용설화의 형성과 변이과정, 한국민속학 10, 민속학회, 1977.
130. 김금희, 처용가의 변천과정고, 어문교육논집 2, 부산대국어교육과, 1977. 12
131. 윤영옥, 처용문헌고, 진단학보 44, 진단학회, 1978. 10.
132. 윤영옥, 처용문헌고, 영남어문학 5, 영남어문학회, 1978. 12.
133. 윤영옥, 처용가의 동경, 국어국문학 78, 국어국문학회, 1978. 12.
134. 박규신, 처용설화의 배경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대학원, 1978. 12.
135. 서정범, 처용가, 무녀의 사랑이야기, 범조사, 1979. 1.
136. 조동일, 처용가무의 연극사적 이해, 탈춤의 역사와 원리, 흥성사, 1979. 3.
137. 김원경, 처용가 연구 -처용가의 설화성과 민속신앙을 중심으로-, 신라가요 연구, 국어국문학회편, 정음사, 1979. 9.
138. 려중동, 고려처용노래 연구, 고려가요연구, 국어국문학회편, 정음사, 1979. 10.
139. 최성호, 처용가 신석 -문화사적고찰을 중심으로-, 국어국문 81, 국어국문학회, 1979. 12.
140. 홍재휴, 처용랑망해사설화의 校訂字辨正 -처용랑부처의 관용, 不貞說辨正을 위한 주석적 고찰, 여성문제연구 8, 효성여대, 1979. 12.
141. 홍재휴, 처용랑 망해사 설화의 신석독 시고, 余泉서병국박사 회갑기념논문집, 형설출판사, 1979. 12
142. 홍재휴, 처용랑부처의 관용, 부정설변정, 효대학보 488, 효성여대, 1979.
143. 서정범, 처용가의 뿌리를 다시 캐본다, 경희문선 4, 경희대국어국문학과, 1979.
144. 김갑기, 처용가 연구, 국어국문학 82, 국어국문학회, 1980. 4.
145. 김준오, 처용시학, 논문집 29, 부산대, 1980. 6.
146. 전규태, 처용가고, 한국신화와 원초의식, 이우출판사, 1980. 12.
147. 김원진, 처용가,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출판부, 1980. 12.

148. 최미정, 처용의 문학전승적 본질, 관악어문연구 5, 서울대 1980. 12.
149. 송재주, 처용가의 형성 연대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 3, 조선대인문과학연구소, 1981. 2.
150. 현용준, 처용설화고, 민속문학연구(국어국문학회편), 정음사. 1981. 5.
151. 임기중, 맹아득안가와 처용가,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이우출판사, 1981. 7.
152. 홍경표, 처용, 그 인간화와 예술화의 과정 - 처용모티브의 시적변용을 중심으로-, 문학과 언어 2, 문학과 언어 연구회, 1981. 9.
153. 강현규, '처용'의 어의고 - A study about the Meaning of cheoyong-, 한국언어문학 20, 한국언어문학회, 1981. 12.
154. 강현규, '처용'의 어의고, 논문집 19(인문과학편), 공주시대, 1981. 12.
155. 김승찬, 처용설화와 그 가요의 연구, 한국문학논총 4, 한국문학회, 1981. 12.
156. 정상균, 처용·처용가 연구, 국어교육 39·40 합병호, 1981.
157. 홍경표, 처용모티브의 시적 변용 -신라정신의 현대적 재현-, 현대문학 325, 현대문학사, 1982. 1.
158. 박노준, 처용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1.
159. 이주순, 처용무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20, 1982. 2.
160. 탁준호, 처용설화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대학원, 1982. 2.
161. 김영태, 용신설화의 서사성, 삼국유사와 문예적 가치해명, 새문사, 1982. 2.
162. 정병현, 처용가 연구, 논문집 2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2. 2.
163. 이명규, 처용가 연구, 고려시대의 가요문학, 새문사, 1982. 3.
164. 박진태, 처용가무에 대한 연극학적 연구, 국어국문학 88, 국어국문학회, 1982. 1. 2
165. 岡山 善一郎, 처용과 道祖神의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대학원, 1982. 12.
166. 박춘규, 처용가의 무격성 고찰, 어문연구 36·7 습, 1983. 2.
167. 김태환, 처용가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대학원, 1983. 9.
168. 조철환, 처용설화의 연구사적 고찰 -삼국유사소재 기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대학원, 1983. 12.
169. 최정여, 처용전후 驅雛儀의 양상, 신라민속의 신연구, 신라문화제 학술발표회 논문집 4, 신라문화선양회, 1983.
170. 설성경, 처용의 가무행위가 지닌 의미 층위, 동방학지 36·37합집, 1983.

171. 최 철, 처용가, 향가의 문학적 연구, 1983.
172. 정상근, 처용가, 한국고대시문학사연구, 한신문화사, 1984. 5.
173. 박진태, 처용가의 배경과 의미, 한국시가의 재조명, 형설출판사, 1984. 8.
174. 최성호, 처용가, 신라가요연구 -배경과 사상을 중심으로-, 1984.
175. 황폐강, 처용가연구의 사적 반성과 일고찰, 향가여요연구, 이우출판사, 1985.
176. 이어령, 초월을 향한 춤/처용가, 고전을 읽는 법, 갑인출판사, 1985. 8.
177. 박기홍, 처용랑 망해사 연구, 인문연구 4, 한양대인문대, 1985.
178. 김승찬, 처용가, 향가문학론, 새문사, 1986. 3.
179. 김경수, 처용가의 연구사적 검토, 신라문학의 신연구,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 논문집 7, 신라문화선양회, 1986. 2.
180. 김순진, 고려 처용가와 신명, 고려시가의 정서, 김대행편, 개문사, 1986. 8.
181. 홍재휴, 처용가 碑陰記攷 -「사람으로 변하여」에 대하여- 靑泉 강용권박사 송도기념논총, 1986. 10.
182. 김진영, 처용의 정체, 한국문학사의 쟁점, 장덕순 외, 집문당, 1986. 11.
183. 박창원, 처용가의 재검토, 우해이병선박사회갑기념논총, 1987. 8.
184. 이충휘, 처용가무의 변이과정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육대학원, 1987.
185. 김문태, 처용랑망해사조의 구조와 의미-일연의 시각을 중심으로-, 성대문학, 성대국어문학과, 1987.
186. 정창일, 처용가, 향가신연구, 새종문화사, 1987.
187. 학술심포지움, 처용무의 이론적 고찰, 시립수용단, 1988. 1. 20.
188. 임기중, 처용노래와 그 이야기의 변신 모티브, 문학과 비평, 통권5호 1988. 3.
189. 박기호, 「처용랑망해사」조와 「처용설화」의 연구, 한양어문연구 6집, 1988.
190. M. 건수, 아랍-무슬림들의 신라내왕과 처용, 중동·아프리카연구 제3호, 중동·아프리카연구원, 1988.
191. 박진태, 굿의 맥락에서 본 처용설화와 처용가, 논문집 34집, 한국국어교육연구, 1989. 1.
192. 고정희, 처용가해독의 재검토, 울산어문논집 5집, 1989. 2.
193. 최용수, 처용가고, 영남어문학 제16집, 영남어문학회, 1989.
194. 김경수, 처용가의 연구 현황, 처용연구논총, 김동욱·황폐강·김경수편 울산 문화원, 1989. 12.
195. 小倉進平, 처용가해독(1), 처용연구논총, 김동욱·황폐강·김경수편·울산문화원, 1989. 12.
196. 양주동, 처용가해독(2), 처용연구논총, 김동욱·황폐강·김경수편, 울산문화

- 원, 1989. 1. 2.
197. 김원진, 처용가해독(3), 처용연구논총, 김동욱·황패강·김경수편, 울산문화원, 1989. 12.
 198. 김동욱, 처용과 처용가, 처용연구논총, 김동욱·황패강·김경수편, 울산문화원, 1989. 12.
 199. 황패강, 처용가의 미의식, 처용연구논총, 김동욱·황패강·김경수편, 울산문화원, 1989. 12.
 200. 장주근, 처용설화의 연구, 처용연구논총, 김동욱·황패강·김경수편, 울산문화원, 1989. 12.
 201. 서대석, 처용가의 무속적고찰, 처용연구논총, 김동욱·황패강·김경수편, 울산문화원, 1989. 12.
 202. 조동일, 처용가무의 연극사적 이해, 처용연구논총, 김동욱·황패강·김경수편, 울산문화원, 1989. 12.
 203. 이용범, 처용설화의 일고찰, —當代이슬람성인과 신라— 처용연구논총, 김동욱·황패강·김경수편, 울산문화원, 1989. 12.
 204. 이우성, 삼국유사소재 처용설화의 일분석 —고려기인제도의 기원과 관련에서, 처용연구논총, 김동욱·황패강·김경수편, 울산문화원, 1989. 12.
 205. M. 건수, 이람—무슬람들의 신라내왕과 처용, 처용연구논총, 김동욱·황패강·김경수편, 울산문화원, 1989. 12.
 206. 학술십포지음, 처용설화의 종합적 고찰, 처용연구논총, 김동욱·황패강·김경수편, 울산문화원, 1989. 12.
 207. 최 철, 처용가, 향가의 문학적 해석, 연세대학교출판부, 1990. 3.
 208. 김학성, 처용설화 서술구조와 처용가의 성격, 문학한글 4호, 한글학회, 1990
 209. 조평환, 불교적 용신사상과 향가, 건국어문학 제15·16합집,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91. 3.
 210. 최용수, 처용가, 고려가요의 유형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학원, 1991. 8.
 211. 박진태, '처용가'의 제의적 구조와 기능, 임하 최진원박사정년기념논총, 고전시가의 이념과 표상, 간행위원회, 1991
 212. 임기중, 처용가의 변신모티브, 고전시가의 실증적 연구, 동국대출판부, 1992. 3.
 213. 최재남, <처용가>의 성격, 한국고전시가 작품론 1, 집문당, 1992. 10.